

중기부·문체부 장관의 현장 행보

# “中企 보호 위한 그늘 될 것” 박영선 장관, 사회변화 의욕

여의도 커피숍서 중기부 출입기자와 만남  
中企-소상공인 연결자 역할 토크할 것

“애플이 중견기업이던 때,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품을 쓰고, 이들 기업이 3~4년 정도 지났을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싶다. 장관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포부다.

박 장관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해 한 달을 순박하게 달려왔다. 10일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한 달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박 장관이 찾은 중기부의 역할은 ‘연결자’다.

그는 “1기 중기부가 동토의 땅에 씨앗을 뿌렸다면 2기 중기부는 언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데이터 질주 시대인 지금은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인구는 줄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이 늘기 때문에 점점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할지 연결자의 역할을 중기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과거처럼 대기업 한 곳이 독주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 중기부는 연결자로서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성공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서 “예전 대기업에 비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가 많은 만큼 이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서울시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도 벤자와 금융기관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정부는 빠지고 민간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자 역할이다.



박영선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가 보다 많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초기부터 재정확대 정책을 과감히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못해) 어렵다. 지금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IMF(국제통화기금) 등 세계 경제를 보는 이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선 국회의원 시절 가졌던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국회 기재위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른데 왜 최저임금이 같은지에 대해 정부에 두 세차례 질문한 적이 있었다. 사회적 여건이 될 성숙돼 아직까지 질문에 (정부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어느나라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보호가)과하나, 적냐는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그렇게 (보호)해주는 만큼 사회적 자산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늘이 하나도 없고 삭막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나무에 기업의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한 사례다. 기업인들이 기부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업이정신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게임, 月 50만원 한도 풀 것” 박양우 장관, 게임 부흥 약속

게임산업, 사회적 규제로 침체돼선 안돼  
과몰입 야기는 게임 아닌 심리적 환경 탓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팔을 걷어부쳤다. 경기도 관교에 있는 게임 업체를 방문해 각종 게임 규제를 타파하고,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특히 현재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성인 PC·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를 이달, 늦어도 6월 상반기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과적으로 ‘수출 효과’로 부상한 게임 산업이 사회적 규제를 통해 침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관교에 있는 게임업체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국내 게임기업·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이 게임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을 율되고 있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게임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 상반기 내 한도를 풀어서 결제 문제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세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조업에 세제혜택을 지급한 것처럼 게임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전문펀드도 현재 300억원에서 2~3년 내 1000억원으로 늘려 직접투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나인 기자

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체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게임업체와 협회 등 기타 관련 부서와도 협업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과거에는 게임산업이 대동기였는데 이제 정년기에 들어섰다”며 “게임 진흥의 분위기에서 사회와 소통하며 작은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전 엔씨소프트 사옥을 방문해 김택진 대표와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진 대표는 “우리 게임을 그냥 놔두면 세계 방방곡곡을 날아다닐텐데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가상현실(VR) 게임을 제작하는 중소벤처기업 리얼리티 매직에도 방문해 회사의 ‘스페이스포스’ 게임을 직접 체험해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와 만난 박 장관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전쟁 현장에 나가있는듯 실감난다”며 “국방부에서도 이런 VR 기술을 군인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등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AR 게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혁명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VR”이라며 “21세기에 주 52시간 시대가 도래하고 초고령사회가 오면 게임이 레저산업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中企업계 최대 행사 ‘중소기업주간’… “中企人 함께해요” 중기부 中 심사성 ‘실크로드 박람회’ 참석

13일부터 17일까지 104개 행사 개최

중소기업 주간에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주간인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인대회 등 전국 시·도에서 104개 행사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혁신성장’, ‘일자리·창업’, ‘상생·공정경제’, ‘글로벌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여성기업’ 등 6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

램을 구성했다.

특히 국가 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포상하는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혁신’과 ‘협업’을 통해 성장하고 우리경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의미를 담아 ‘혁신과 협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로 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중소기업계의 현안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의지를 담아 준비했다”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사기가 진작되고,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33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공동 개최하고, 27개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후원한다.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국 심사성 정부로부터 ‘2019 심사성 실크로드 박람회’에 공식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19 심사성 실크로드 박람회’는 중국 상무부, 심사성 정부 등이 주최하며 한국·영국·일본 등 20여개 국 2000여업체가 참가하는 중국 서부지방 최대 박람회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는 10일, 위

이중현 심사성 부시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 협력과 중국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사드 사태 이후 소원했던 양국의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심사성 인민 정부와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우수 중국인 채용 등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